

# 『黃帝內經』時空認識의 特徵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內容提要(Abstract)

韓醫學依據陰陽、五行、四象、三陰三陽、八卦等多種理論體系觀察自然現象，形成獨特的時空體系，把他在臨床實踐廣泛應用。這些時空體系都來源於『黃帝內經』。因此本論文主要探討『黃帝內經』時空觀的特徵。這也是對多種韓醫學時空模型的特徵的分析。其特徵有系統層次性，相對性，恆動循環性，無限性，整體合一性。

關鍵詞(Keywords)：時空，時空觀，相對性，恆動循環性，無限性，整體合一性

## I. 緒論

時間과 空間은 宇宙의 事物과 事件에 질서를 부여하고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인체를 다루는 한의학분야에 있어서 時空問題는 더욱 基本이 되는 핵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한의학은 陰陽, 五行, 四象, 八卦 등 여러 가지 模型方法을 가지고 自然現象을 관찰하여 獨特한 時空體系를 형성하였다.1)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黃帝內經』 중의 시공모형에 대해서 몇가지 類型으로 분류하여 서술한 바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연구를 바탕으로 『黃帝內經』이 가지고 있는 時空觀의 特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동시에 『黃帝內經』의 시공모형이 갖는 특성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 II. 本論

### 1. 系統層次性(有機性)

『內經』은 世界의 모든 萬物은 本質的으로 力動的이며 時間과 空間의 變化를 本來부터 內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宇宙란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살아있고, 時間과 空間이 有機的으로 결합된 하나의 불가분의 實在라고 認識하였다. 즉 時間的으로 過去와 現在, 未來가 有機的으로 連結되어 있으며, 空間的으로 宇宙 自然과 社會, 人體가 有機的으로 連結되어 있다고 보았다. 『素問·舉痛論』에 “善言天者는 必有驗於人하고 善言古者는 必有合於今하나라”라고 했고, 『素問·氣交變大論』에 “善言天者는 必應於人하고 善言古者는 必驗於今하나라”라고

1) 拙稿 『黃帝內經』 中の 時空模型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5권 1호, 2002:279  
2) 拙稿 『黃帝內經』 中の 時空模型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5권 1호, 2002

하였는데, 自然과 人間, 過去와 現在가 상호 유기적으로 連結되어 있어 상호 影響을 미친다고 認識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周易』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周易·繫辭上』의 “原始反終”은 時間은 하나의 理致에 따라 흘러가므로 現在를 보면 과거를 짐작할 수 있고, 未來를 豫測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며, 時間의 有機的 特性을 잘 反映한 말이다.

시공의 有機的 特性은 계통성과 층차성이 그 바탕이 된다. 運動變化하는 일체의 유기체는 系統層次性을 갖는다는 것이 한의학의 普遍的인 認識이다. 『內經』의 時空模型內에서 바로 이러한 系統層次性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구조적 系統性을 살펴보면, 各 時空模型은 여러개의 子系統으로 構成되며 各 子系統이 모여 하나의 時空模型을 完成한다. 따라서 各 子系統은 相互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陰陽時空模型은 陰系統과 陽系統의 時空으로 構成되며, 四象時空模型은 太陽系統, 太陰系統, 少陰系統, 少陽系統의 時空으로 構成되며, 五行時空模型은 木系統, 火系統, 土系統, 金系統, 水系統의 時空으로 構成되며, 三陰三陽時空模型은 厥陰系統, 少陰系統, 太陰系統, 少陽系統, 陽明系統, 太陽系統의 時空으로 構成된다. 기타 八卦時空模型, 干支時空模型 亦是 各 各 8개 子系統, 10개 子系統으로 區分된다.

『內經』時空模型은 同時에 層次性을 가지고 있다. 年, 月, 日, 時가 가장 쉽게 認識할 수 있는 가장 基本的인 時間의 層次構造이다. 年은 月로 구성되고, 月은 日로 구성되고, 日은 時로 構成되어, 年, 月, 日, 時의 사이에는 일종의 整體와 部分, 系統과 要素의 관계가 있다.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 1년을 四時

로 나누듯이 1일을 네 개의 시간 단위로 나누고, 1년의 四時와 1일의 四時에 相應하는 陰陽變化가 일어난다고 認識한 것이 그 例이다. 月의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朔弦望晦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이밖에, 『素問·六節藏象論』에서 “五日謂之候, 三候爲之氣, 六氣爲之時, 四時爲之歲니라”라고 한것도 時間에 對한 系統層次的 認識을 反映한 것이다<sup>3)</sup>.

空間方面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系統層次的 認識은 宇宙自然-人體層次構造模式이다. 이는 天人相應思想을 根據로 形成된 것인데, 『內經』은 形態構造의 側面에서 人間과 天地自然은 서로 對應한다고 認識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sup>4)</sup>, 『靈樞·陰陽繫日月』<sup>5)</sup>, 『靈樞·經別』<sup>6)</sup>, 『靈樞·經水』<sup>7)</sup>, 『靈樞·海論』<sup>8)</sup>, 『靈

- 3) 시간에 대한 계통층차적 인식은 고대 중국 철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管子·宙合第十一 外言二』에서 “歲有春夏秋冬夏하고, 月有上下中旬하고, 日有朝暮하고, 夜有昏晨하고, 半星辰序各有其司하니, 故曰天不一時니라”라고 하였다. (李丹·榮挺進 譯注, 管子白話今譯, 中國書店, 1997: 101쪽)
- 4) 『素問·陰陽應象大論』: “惟賢人上配天以養頭, 下象地以養足, 中傍人事以養五藏”, “六經爲川, 腸胃爲海.”
- 5) 『靈樞·陰陽繫日月』: “腰以上爲天, 要以下爲地……, 故足之十二經脈, 以應十二月……手之十指, 以應十日.”
- 6) 『靈樞·經別』: “黃帝問於岐伯曰: 余聞人之合於天道也, 內有五藏, 以應五音五色五時五味五位也. 外有六腑, 以應六律. 六律建陰陽諸經, 而合之十二月十二辰十二節十二經水十二時十二經脈者, 此五藏六腑之所以應天道.”
- 7) 『靈樞·經水』: “經脈十二者, 外合於十二經水”, “足太陽外合於清水, 內屬於膀胱, 而通水道焉. 足少陽外合於渭水, 內屬於膽. 足陽明外合於海水, 內屬於胃. 足太陰外合於湖水, 內屬於脾. 足少陰外合於汝水, 內屬於腎. 足厥陰外合於澗水, 內屬於肝. 手太陽外合於淮水, 內屬於小腸而水道出焉. 手少陽外合於深水, 內屬於三焦. 手陽明外合於江水, 內屬於

樞·邪客』 등 여러 편에서 보인다. 그 중 『靈樞·邪客』篇이 가장 代表的인 篇인데, 그 內容을 보면,

黃帝 | 問於伯高曰願聞컨대 人之肢節이 以應天地는 奈何니잇고. 伯高 | 答曰天圓地方하니 人頭圓足方하야 以應之하고, 天有日月하니 人有兩目하고, 地有九州하니 人有九竅하고, 天有風雨하니 人有喜怒하고, 天有雷電하니 人有音聲하고, 天有四時하니 人有四肢하고, 天有五音하니 人有五藏하고, 天有六律하니 人有六府하고, 天有冬夏하니 人有寒熱하고, 天有十日하니 人有手十指하고, 辰有十二하니 人有足十指와 莖垂하야 以應之로대 女子는 不足二節하야 以抱人形하고, 天有陰陽하니 人有夫妻하고, 歲有三百六十五日하니 人有三百六十節하고, 地有高山하니 人有肩膝하고, 地有深谷하니 人有腋臑하고, 地有十二經水하니 人有十二經脈하고, 地有泉脈하니 人有衛氣하고, 地有草莫하니 人有毫毛하고, 天有晝夜하니 人有臥起하고, 天有列星하니 人有牙齒하고, 地有小山하니 人有小節하고, 地有山石하니 人有高骨하고, 地有林木하니 人有募筋하고, 地有聚邑하니 人有膈肉하고, 歲有十二月하니 人有十二節하고, 地有四時不生草하니 人有無子이다. 此 | 人이 與天地로 相應者也이다.”라고 하여, 人間과 天地自然의 형상적 對應關係를 종합적으로 敍述하였다.

이러한 形象의인 天人相應思想은 『管子·水地』, 『淮南子·精神訓』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管子·水地』에 “水者는 地之血氣니 如筋脈之通流者也니라<sup>9)</sup>”라고 하고, 『淮南子·精

神訓』에 “故頭之圓也 | 象天이오, 足之方也 | 象地니라. 天有四時五行九解하고 三百六十六日하니 人亦有四支五藏九竅하고 三百六十節하니라. 天有風雨寒暑하니 人亦有取與喜怒하니라. 故膽爲雲이오 肺爲氣오 肝爲風이오 腎爲雨오 脾爲雷하야 以與天地相參也니라. 以心爲之主하니 是故로 耳目者는 日月也오, 血氣者는 風雨也니라”<sup>10)</sup>라고 하였다. 『內經』은 이들에 비해 그 內容이 한층더 細密하다.

이외에도 『素問·三部九候論』에서는 人體를 上部(天), 下部(地), 中부(人)로 나누고 다시 各各을 三部(天地人, 또는 上中下)로 나누어 모두 아홉 部分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自然을 天地人으로 認識하였던 三才思想과 天下를 아홉(九州, 九野)으로 나누었던 것에서 淵源한 것이다. 『靈樞·九宮八風』과 『靈樞·九鍼論』에서 人體의 各 部位를 九宮과 配合한 것도 그 一例이다. 空間에 대한 系統層次的 認識은 政治組織方面에까지 擴大되었는데,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人體 五藏을 政治機關에 配屬하였다.

人體 自體에도 空間의 系統的 層次構造가 存在하는데, 우선 人體는 三陰三陽經絡을 中心으로 하는 經絡機能系統과 五臟을 中心으로 하는 藏府機能系統으로 區分된다. 經絡機能系統은 人體에 대한 陰陽論的 認識에서 비롯된 것이며, 五藏機能系統은 五行論的 認識을 根據로 成立된 것이다. 經絡機能系統은 氣血의 循環을

8) 『靈樞·海論』: “岐伯答曰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 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 命曰四海. 黃帝曰以人應之奈何? 岐伯曰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 以應四海也.”

9) 李丹·榮挺進 譯注. 管子白話今譯. 中國書店, 1997. 350쪽

大腸. 手太陰外合於河水, 內屬於肺. 手少陰外合於濟水, 內屬於心. 手心主外合於澮水, 內屬於心包.”

8) 『靈樞·海論』: “岐伯答曰人亦有四海, 十二經

中心으로 하는 外生理를 擔當하며, 經絡機能系統은 精氣의 循環을 中心으로 하는 內生理를 擔當한다. 藏府機能系統은 人體의 機能을 五行屬性에 따라 五藏六府를 中心으로 分類한 機能體系이다. 經絡機能系統은 陰陽에서 分化한 三陰三陽理論에 따라 人體의 機能을 三陰三陽經脈을 中心으로 分類한 機能體系이다.<sup>11)</sup> 藏府機能系統과 經絡機能系統은 陰陽과 五行에 있어서, 陰陽에 五行이 包含되고 五行에 陰陽이 包含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經絡機能系統中에 藏府機能系統이 包含되며, 藏府機能系統中에 經絡機能系統이 包含된다.

또 藏府機能系統과 經絡機能系統은 各各 精氣와 氣血循環을 中心으로 機能活動을 維持하면서, 同時에 상호 資生하고 상호 協調한다. 즉 藏府機能系統을 中心으로 하는 內生理는 精을 使用하여 生命을 維持 存續하고 氣血을 化生하여 外生理機能에 基礎를 提供해 주고, 經絡機能系統을 中心으로 하는 外生理는 生成된 氣血을 利用하여 다시 精을 生成하므로써 內生理가 圓滑히 維持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五臟系統은 藏府-經絡-五體(筋, 脈, 肌肉, 皮毛, 骨髓)-五官(目, 舌, 口, 鼻, 耳) 등의 層次構造가 存在한다. 각각의 層次는 그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위 層次는 하위 層次에 영향을 미치고 하위 層次는 상위 層次의 구성 요소 즉 기초가 된다. 經絡과 藏府의 層次구조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시공 구조로서, 우주시공구조 및 生命시공구조의 기본 層次구조이다.

## 2. 相對性

11) 拙稿, 仲景『傷寒論』의 六經實質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4.: 57

각 事物이 感知하는 時空은 각각 다르다. 卽 時空에 對한 上下高低大小長短의 認識이 觀察者에 따라 다르다. 어떤 對象을 測定하여 絕對的으로 얼마다라고 할 수 있는 絕對的인 方法은 없다. 그저 우리가 任意로 定해 놓은 자(尺)와 比較해서 그 相對的인 크기만을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時間의 間隔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定해 놓은 基準과의 比較를 통한 相對的인 測定值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現在 地球上에서 絕對的인 時間이나 空間의 尺度는 없다.

時空의 相對性에 대한 認識은 東洋에서는 戰國時代 莊子가 代表的이다. 莊子は 『莊子·逍遙游』에서 “朝菌은 不知晦朔하고, 蟪蛄는 不知春秋하니 此는 小年也니라. 楚之南에 有冥靈者한대 以五百歲爲春하고 五百歲爲秋하며, 上古에 有大椿者한대 以八千歲爲春하고 八千歲爲秋하니 此는 大年也니라”라고 하였다. 하나의 春이 어떤 事物에게는 五百年에 相當하고, 어떤 事物에게는 八千年에 相當하고, 어떤 事物에게는 아주 짧은 時期에 該當한다. 莊子는 여기서 時間의 相對性을 提起한 것이다. 또 “天與地卑, 山與澤平”(『莊子·天下』)라고 하였는데, 이는 空間의 高低를 認識하는데 있어서 絕對的인 尺度가 없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空間의 相對性을 밝힌 것이다. 또 『管子』는 宇宙를 “大之無外, 小之無內”라고 표현하였고, 惠施는 “至大無外, 至小無內”(『莊子·天下』)라고 표현하였는데, 모두 空間의 無定型性 즉 相對性을 말한 것이다.

『周易』에서 六爻를 運用할 때도 時空은 相對的으로 認識된다. 六爻는 空間上 人體內의 上下로 把握할 수 있고, 同時에 社會의 層次構造로 把握할 수도 있으며, 宇宙全體의 空間構

造로 把握할 수 있다. 時間方面에서도 六爻에 1日, 1個月, 1年の 時間을 同時に 適用할 수 있다. 結局 時空은 適用하는 事物에 따라 그 基準이 달라지고 그 範疇가 달라지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도 絶對的 概念은 찾아보기 힘들다. 例컨대, 『內經』에 “太虛”란 말이 나오는데, “太虛”의 “虛”는 아무것도 없다는 絶對的인 “無”가 아니고, 氣로 充滿한 宇宙空間을 意味한다. 단지 그 範圍가 너무 넓고 그 變化가 일어나는 時間이 매우 길어서 그것을 認識하지 못할 뿐이다. 結論적으로 韓醫學에서 絶對的인 “無”나 “虛”는 존재하지 않는다.

『內經』에서 하루의 시간을 네단계로 나누어 一年의 四時에 比較한 것이나, 十二經絡이 一日12時辰에 상응하든 一年12월에 相應하든 同一한 理致에 따라 돌아간다고 認識한 것은 바로 時空에 對한 相對的, 整體的 認識을 反映한 것이다. 『內經』에서 人體를 하나의 小宇宙로 보는 것 역시 空間에 對한 相對的 認識을 反映한 것이다. 人體를 하나의 小宇宙로 본 이상 人體의 各 臟腑, 組織, 細胞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의 宇宙인 것이다. 결국 宇宙의 時空, 人體의 時空, 藏府의 時空, 組織의 時空, 細胞의 時空이 同一한 理致로 돌아간다고 認識한 것이다. 이는 同時に 時空의 擴張性, 廣延性을 反映하는 것이다.

한의학의 時空에서 絶對性을 認定하지 않은 理由는 萬物이 變態없이 運動變化하면서 同時に 時空이 一切로 돌아가기 때문에 固定不變의 絶對的인 時間이나 空間概念은 存在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인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실제적인 시공간이다. 西洋科學에서 20世紀 들어서 相對性理論의 創立으로부터 비로소 밝힌 時空의 意味를 數千年前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恒動循環性(非可逆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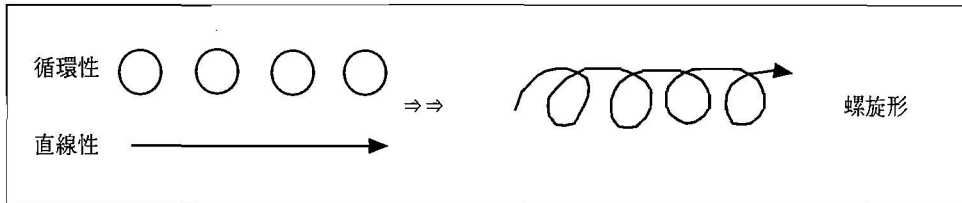
이는 時空의 恒動性과 非可逆性을 가리킨 것이다. 고대 중국철학은 이미 시공의 항동성과 비가역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易傳』 중의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繫辭上』), “自強不息” 등은 萬物이 끊임없이 運動變化한다고 認識한 것이다. 이런 恒動性에 두가지가 있는데 直線性과 循環性 즉 環型性(또는 圓型性)이다.

“周易”의 “周”에는 週期, 循環의 意味가 있으며, 易은 곧 變化를 意味하니, “周易”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循環的 時空觀이 內包되어있다. 循環性은 週期性을 가리킨다. 『周易·恒卦·彖傳』에 “天地之道 | 恒久而不已也니라. 利有攸往은 終則有始也르세니라. 日月이 得天而能久照하며 四時 | 變化而能久成하나니……”라고 하였는데, 宇宙란 끊임없는 循環을 反復하면서 永遠히 存在하는 것으로, 每年 春夏秋冬, 또는 8節氣, 12月 等の 過程을 거치면서 陰陽消長의 變化를 나타낸다고 認識한 것이다. 이는 環型의 時間觀念이다. 太極圖, 12辟卦圖, 先後天八卦圖 등의 六爻週期, 八卦週期, 十二辟卦週期, 六十四卦週期 등이 모두 圓型의 時空觀念을 反映하는 것들이다. 『周易·復卦』의 卦辭인 “反復其道, 七日來復”, 역시 易學의 圓型思考를 反映한 것이다.

이밖에 『周易·繫辭上』에서는 “原始反終”이라 했는데, 여기서 始는 過去, 原因이며, 終은 未來, 結果이다. 이 句節은 過去를 보면 未來를 豫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時間이 過去에서 現在로 現在에서 未來로 흘러간다는 假

定下에서 成立되는 것이다. 또 『周易·豫卦·象傳』에 “天地 | 以順動이라 故로 日月이 不過而四時 | 不忒하고……”라고 했는데, 이는 春-夏-秋-冬의 順序가 自然의 正常的인 變化規律임을

『素問·玉版論要』와 『素問·玉機眞藏論』에 “神轉不迴, 迴則不轉, 乃失其機”라 하고, 王冰은 『玉版論要』에서 注하기를 “血氣者는 神氣也라, 『八正神明論』에 曰血氣者는 人之神이니



말한 것이다. 이상은 모두 非可逆的 直線性 時間概念을 反映한 것이다. 戰國時代 管子는 明確하게 時間의 非可逆性을 主張하는데, 그는 “昔之日已往而不來矣”(『管子·乘馬』)라고 하였다. 이는 古代 中國의 直線的 時間觀을 반영하는 것이다.

『內經』역시 萬物運動變化의 循環性을 인식하였는데, 『素問·六節藏象論』에 “終朞之日, 周而復始, 時立氣布, 如環無端”이라 하였다. 또 『素問·熱論』에 보이는 熱病의 發展 및 衰退 過程 그리고 『傷寒論』중의 六經 週期 역시 순환적 시간觀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周易』의 “反復其道, 七日來復”과도 논리상 상당히 一致한다.

『內經』에 보이는 陰陽週期, 四象週期, 五行週期, 六氣週期, 八風週期, 十干週期, 十二支週期, 六十甲子週期 等은 모두 時空의 週期性을 反映하는 것이다. 衛氣와 營氣의 循環, 十二經脈의 子午流注循環 等이 그 具體的인 例이다.

『內經』時空模型은 時間이 過去에서 現在로, 現在에서 未來로 一方向으로만 前進한다고 보았다. 이는 一種의 非可逆的인 直線性 時間概念이다.

不可不謹養也’라하니. 夫血氣는 應順四時하여 遞遷囚王한대 不合하면 却行하고 却行則反常하고 反常則回而不轉也니, 回而不轉이면 乃失生氣之機矣니라. 何以明之오? 夫木衰則火王하고 火衰則土王하고 土衰則金王하고 金衰則水王하고 水衰則木王하야 從而復始循環하니 此之謂神轉不回也니라. 若木衰水王하고 水衰金王하고 金衰土王하고 土衰火王하고 火衰木王하면 此之謂回而不轉也니라. 然反天常軌하니 生之何有耶오!”라고 했고, 『玉機眞藏論』의 주석에서는 “五氣循環호대 不愆時叙면 是 | 爲神氣 | 流轉不回니라. 若却行衰旺하야 反天之常氣면 是는 則却回而不轉이라 由是却回不轉이면 乃失生氣之機矣니라”라고 하였다. 王冰은 “轉”을 時間의 흐름과 相應하는 血氣의 正常的인 運行規律로, 回를 時間에 거스르는 非正常的인 運行規律로 이해했다. 그는 木-火-土-金-水의 運行에는 항상 一定한 順序가 있으며 이를 거꾸로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즉 그의 意見을 따르다면 『內經』은 時間이 單方向으로 順行만할 뿐 逆流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여기서 『內經』의 非可逆的 時間觀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內經』의 時空觀은 直線的 時間概念과 環型的 時間概念이 并存한다. 直線性

은 方向性을, 循環性은 週期性을 가리킨다. 두 概念을 합치면 새로운 螺旋型의 時空模型이 형성된다.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이 비록 같은 木에 屬하는 것이지만 그 位置가 이미 前進해 있어서 그 실제 內容은 分明히 같지 않다. 이는 單純한 機械的 循環이 아님을 意味한다. 즉 宇宙는 “終則有始” 또는 “周而復始”하는 過程 속에서 不斷히 새로운 內容을 創出한다.

#### 4. 無限性

恒動循環的 時空觀은 時間의 永遠性을 意味하며 同時에 空間의 廣延性을 內包한다. 『內經』의 “太虛”는 곧 時間의 永續性과 空間의 廣延性을 反映한 것이다. 古代 中國 天文學에는 세가지 宇宙學說이 있는데, 蓋天說, 渾天說, 宣夜說이다. 蓋天說은 하늘은 하나의 샷갓처럼 생겼고, 대지는 얹어놓은 쟁반처럼 생겼는데, 太陽이 北極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여겼다. 이와 관련된 하늘의 높이나 땅의 넓이, 一月 運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들은 『周髀算經』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sup>12)</sup> 蓋天說은 宇宙와 그 空間 구조를 둥근 덮개와 네모난 쟁반이 結合해서 이루어진 有形의 물체라고 파악하였다. 결국 그것은 경계가 있는 有限한 우주 모형이다.<sup>13)</sup> 渾天說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張衡의 『渾天儀圖注』인데, 그는 계란에 비유해서 우주를 설명하였다. “渾天如鷄子하니, 天體는 圓如 彈丸하고, 地는 如鷄中黃하야 孤居于內하며, 天大而地小니라. 天表裏 | 有水하고, 天之包地 | 猶殼之裹黃이니라.” 하늘과 땅이 모두 球體

이며, 하나의 球形 大地가 둥그런 天球의 中央에 위치한다는 것이다.<sup>14)15)</sup> 또 그는 “宇之表 無極, 宙之端無窮(공간의 밖은 끝이 없고, 시간의 실마리도 끝이 없다)”라고 하여, 天球의 외부에 또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無限한 우주라고 보았다.<sup>16)</sup> 宣夜說은 고대 中國 歷史上 가장 발달된 宇宙模型이다. 『晉書·天文志』에서 東漢의 鄒萌이 기록한 內容을 인용하여 “天了無質하야 仰而瞻之하면 高遠無極하야 眼眇精絕하니 故蒼蒼然也니라. …… 日月衆星이 自然浮生虛空之中호대 其行其止는 皆須氣焉이니라”<sup>17)</sup>라고 하였다. 이 宇宙概念은 人爲的인 “天”의 경계를 타파하고, 無限한 우주 공간을 제시한 것으로, 끝없는 우주 공간에 日月星辰이 표류하는데 이들은 모두 氣에 의지해 運行한다는 것이다.<sup>18)</sup> 宣夜說은 渾天說이나 蓋天說에 비해 現代의 宇宙論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內經』의 宇宙觀은 蓋天說과 宣夜說 두가지 觀點이 보인다. 그 중 『內經』은 宣夜說을 자신의 우주이론의 핵심으로 삼고, 이로써 우주의 구조와 발전과정을 설명하였는데, 나름대로 깊이 있고 독특한 見解가 엿보인다.

『素問·天元紀大論』“太虛寥廓하야 肇基化元하니 萬物資始하고 五運終天하야 布氣眞靈하고 摠統坤元하며 九星懸朗하고 七曜周旋하니 曰陰曰陽하고 曰

12) 雷順群主編, 『內經』多學科研究,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0. 210쪽, 中國

13) 陳荷清·孫世雄, 人類對時間和空間本質的探討, 河南人民出版社, 1986. 105쪽, 中國

14) 雷順群主編, 『內經』多學科研究,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0. 210쪽, 中國

15) 趙載光, 中國古代自然哲學與科學思想, 湖南人民出版社, 1999. 167쪽, 中國

16) 趙載光, 앞의 책, 167~168쪽

17) 《二十五史 晉書上》중화서국, 아름출판사 영인, 1995. 84쪽

18) 雷順群主編, 『內經』多學科研究,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0. 210쪽, 中國

柔曰剛하야 幽顯既位에 寒暑弛張하니  
生生化化하야 品物咸亨하니이다.”

『素問·五運大論』“夫變化之用은  
天垂象하면 地成形하고, 七曜緯虛하면  
五行麗地니, 地者는 所以載生成之形類  
也나, 虛者, 所以列應天之精氣也니이다.  
形精之動은 猶根本之與枝葉也니 仰觀其  
象하면 雖遠可知也니이다. 帝 | 曰地之  
爲下否乎잇가. 岐伯이 曰地爲人之下나  
太虛之中者也니이다. 帝 | 曰馮乎잇가.  
岐伯이 曰大氣攀之也니이다.”

위에서 『內經』은 宇宙를 “太虛”라고 稱하였  
는데, 이는 氣로 充滿된 無限한 空間을 가리킨  
다. 日月星辰과 大地가 모두 공기 중에 둥둥  
떠있으면서 각기 다른 運動을 進行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우주 공간은 境界가 없는 無限  
한 공간이다.

『內經』의 時空에 대한 이같은 認識은 『周  
易』에서도 쉽게 發見할 수 있다. 『周易·繫辭  
上』에 “廣大配天地, 變通配四時”, “變通者, 趣  
時者也”라고 했는데, ‘廣大’는 곧 上下四方의  
空間을 형용한 말이며, 變通은 時間을 형용한  
말이다. “廣大配天地”는 곧 宇宙의 至大함을 表  
現한 말이다. 『周易·繫辭上』에 “是故로 闔戶  
를 謂之坤이오, 闔戶를 謂之乾이오, 一闔一闔  
을 謂之變이오, 往來不窮을 謂之通이오”라고  
했는데, ‘不窮’은 ‘無限無盡’의 뜻이니, ‘通’은 天  
地의 宇宙萬物이 끊임없이 運動變化함을 意味  
한다. 즉 ‘通’은 運動變化의 持續性 즉 連續性  
을 反映한 것으로, 이는 同時에 時空의 永續性  
을 表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恒卦·彖傳』  
에 “恒은 久也니 …… 天地之道 | 恒久而不已  
也니라”, 『繫辭下』에 “易은 窮則變하고 變則通  
하고 通則久니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직접적

으로 時間의 永續性 즉 無限性을 표현한 것이  
다.

이같은 『內經』時空觀의 無限性은 『管子』,  
『莊子』, 『惠施』 등의 時空認識을 受容한 것이  
다. 管子는 『乘馬數』에 “春夏秋冬, 不知時終始”  
라고 하여, 時間의 無限性을 제시하였다. 또  
『管子·宙合』에 “天地는 萬物之橐也니 宙合은  
有橐天地니라. 天地 | 苴萬物하니 故로 曰萬物  
之橐이니라. 宙合之意는 上通于天之上하고 下  
泉于地之下하며, 外出于四海之外하고 合絡天地  
하야 以爲一囊하며, 散之至于無閑하야 不可名  
而山(山은 出의 誤字)이라. 是 | 大之無外하고  
小之無內하니 故로 曰有橐天地라하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宙”는 時間을 가리키고, “合”  
은 空間을 가리키는 말이다. “大之無外, 小之  
無內”는 時空(宙合)은 크게 놓고 보든 작게 놓  
고 보든 상관없이 모두가 無限하다는 것을 강  
조한 것이다.<sup>19)</sup> 『莊子』도 “其遠而無所至極邪”  
라고 했는데, 이 역시 空間의 無限性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莊子·天下』에서는 惠施의 말을  
인용하여 “至大無外, 至小無內”라고 하였는데,  
이는 『管子·宙合』에 나오는 “大之無外, 小之  
無內”와 서로 통한다.

현재 많은 學者들이 『周易』의 太極-陰陽-四  
象-八卦-六十四卦……의 分化模式이 現代天體  
物理學의 大爆發理論(bigbang)과 유사하다고  
認識하고 있다. 그런데 宇宙大爆發理論에 따른  
다면 宇宙는 有限과 無限 두가지 可能性이 存  
在한다. 즉 宇宙가 無限히 膨脹한다는 假說과  
宇宙가 一定 水準에 도달하면 더이상 膨脹하지  
않고 다시 收縮하게 된다는 假說이 있는데, 아  
직까지 明確한 解答은 없는 狀態다. 『內經』의

19) 李烈炎, 時空學說史, 湖北人民出版社,  
1987. 4쪽, 中國

觀點에서 본다면, 宇宙는 陰陽闔辟運動을 통해 運動變化한다. 闔은 收縮의 過程이고 辟은 膨脹의 過程이다. 宇宙를 하나의 太極整體로 볼 때, 陽의 作用에 의해 分化되었다가 다시 陰의 作用에 의해 收縮되는 過程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時空은 마땅히 有限하거나, 혹은 時間은 無限하지만 空間은 有限하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時空의 無限性 및 統一성과 矛盾이 된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좀 더 深度있는 研究가 必要하지만, 筆者의 생각으로는 觀念上 宇宙 自體는 시작과 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식상 지극히 크기 때문에 無限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 5. 整體合一性

이는 곧 時空一體性, 時空統一성을 말한 것이다. 古代中國哲學에서는 처음부터 時空을 서로 分離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現在 널리 使用되고 있는 “宇宙”라는 말 自體가 이미 時空의 意味를 含蓄하고 있다. 『屍子』에서 “四方上下曰宇, 往來古今曰宙”라 했는데, 宇는 空間이며, 宙는 곧 時間이다. 따라서 宇宙는 본래부터가 時空統一體인 것이다. 『管子』중에 나오는 “宙合”이나 『墨子』중에 보이는 “宇久”는 모두 “宇宙”와 相應하여 時空統一의 概念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중국 先秦時期에 형성된 時空統一의 개념은 上古時代의 “觀象授時”에서 기원한 것으로, 어떤 文明이든 고대 시대에는 모두가 이같은 “觀象授時”의 時期를 거쳤다. 이는 曆法이 아직까지도 完備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太陽이 떠오르기 전에 동쪽하늘에

서 어떤 별을 관측했다면 바로 날씨가 금방 더워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黃昏에 어떤 별자리가 마침 정남방에 출현하였다면 지금이 몇월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이 星象에 근거해서 일년의 季節을 판단하는 것을 바로 “觀象授時”라고 한다.<sup>20)</sup> 이상은 中國 先秦時期에 이미 空間을 기준으로 時間을 측정하거나 時間을 기준으로 空間을 측정할 수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古代에서부터 이미 時間과 空間을 분리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班固는 “四方, 四時之體”(『漢書·律曆志』)라고 하여, 時間과 空間의 關係를 四方이 體가 되고 四時가 用이 되는 體用一體의 關係로 把握하였다. 이같은 時空合一의 特性은 각종 時空模型을 통해서도 쉽게 把握할 수 있다. 各 時空模型의 陰陽, 五行, 四象, 八卦 등이 모두 時空의 意味를 同時에 含蓄하고 있다<sup>21)</sup>. 예를 들어, 陰陽時空模型에서 陰陽은 『內經』에서 天地, 春夏-秋冬, 晝夜, 前後, 表裏, 上下, 男女, 左右 등을 가리킨다. 天地, 前後, 表裏, 內外, 左右 등은 空間의 陰陽이며, 晝夜, 春夏-秋冬, 上半年-下半年 등은 時間의 陰陽이다. 陰陽을 時間과 空間으로 區分하면 위와같이 區分할 수 있으나 둘의 概念은 서로 別個로 獨立의 存在할 수 없으며, 항상 연결지어 생각해야 한다. 時間의 陰陽과 空間의 陰陽은 서로 密接한 聯關을 맺고 있다. 즉 낮이 되면 陽氣가 主管하는데 陽氣는 주로 밖에서 活動하며, 밤이 되면 陰氣가 主管하는데 陰氣는 주로 안에서 活

20) 李烈炎, 앞의 책, 22쪽.

21) 각 시공모형에 대해서는 拙稿 “『黃帝內經』중의 시공모형에 대한 연구”(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5권 1호, 279~309쪽, 2002.2.28)에 자세히 밝혀놓았다.

動한다. 또 春夏에는 陽氣가 主管하며 全體的으로 氣가 外部로 發散하는 傾向이 强하며, 秋冬에는 陰氣가 主管하는데 全體的으로 氣가 內部로 收斂하는 傾向이 强하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陽生陰長, 陽殺陰藏”이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陰陽者는 天地之道也오 萬物之綱紀오 變化之父母오 生殺之本始오 神明之府也니 治病必求於本이니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天地는 單純한 空間的 天地가 아니라 時空合一의 宇宙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문장은 陰陽이 바로 時空의 內在規律임을 암시하고 있다. 五行時空模型에서 木은 東方을 意味하면서 同時에 1年中의 春을 意味한다. 火는 南方을 意味하면서 同時에 夏를 意味한다. 이것은 氣의 運動과 密接한 연관이 있다. 時間이 春에서 夏로 흘러간다는 것은 곧 東에서 南으로의 空間移動을 意味한다. 이러한 時空一體思想을 人體에 應用한 것이 時臟理論, 四時刺法, 四時脈法 等이다.

왜 시간과 공간을 不可分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은 事物의 運動變化가 時間과 空間에 모두 密接한 聯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事物의 運動變化는 空間의 移動을 意味하며 空間의 移動은 곧 時間의 流逝를 隨伴한다. 따라서 事物과 時間과 空間 세가지는 恒常 서로 聯繫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內經』의 입장에서 볼 때, 宇宙萬物은 모두 氣의 升降出入을 통해 化生되는데, “是以로 升降出入은 無器면 不有하니, 故로 器者는 生化之字오, 器散則分之하여 生息矣니이다.”(『素問·六微旨大論』) 라고 하였다. 여기서 ‘器(物體)’는 바로 生化가 이루어지는 空間(宇)이며, ‘生化’는 곧 氣의 升降出入에 의한 事物의 運動變化로서 時間의 흐름(宙)을 반영한다. ‘器’가

홀어지면 事物이 소멸되고 事物의 運動變化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空間이 없이는 時間 역시 存在할 수 없음을 間接적으로 示唆하는 말이다. 이로부터 『內經』의 時空一體思想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은 “氣가 時空模型의 本體”<sup>22)</sup>라는 命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 III. 結 論

時空에 대한 『黃帝內經』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크게 다섯가지의 특성으로 종합할 수 있었다.

첫째, 系統層次性; 둘째, 相對性; 셋째, 恒動循環性; 넷째, 無限性; 다섯째, 整體合一性

『黃帝內經』의 時空에 대한 인식은 비록 소박하기는 하지만 현대물리학의 시공 인식과 부합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시공의 상대성과 통일성에 대한 인식은 현대물리학의 상대성이론과, 무한성에 대한 인식은 현대물리학의 우주론과 연계시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IV. 參 考 文 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2) 이에 대해서는 拙稿 “『黃帝內經』중의 시공 모형에 대한 연구”(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5 권 1호, 279~309쪽, 2002.2.28)를 참조할 것.

3. 黃帝內經素問, 人民衛生出版社, 1998
4. 原本備旨原本周易, 太山文化社, 1984.
5. 李丹·榮挺進 譯注, 管子白話今譯, 中國書店, 1997.
6. 王世舜 主編, 莊子譯注, 山東教育出版社, 1995.
7. 胡安順·張文年 等譯, 白話淮南子, 三秦出版社, 1998.
8. 班固, 漢書, 中華書局.
9. 二十五史 晉書上, 中華書局, 아름출판사 영인, 1995.
10. 雷順群主編, 『內經』多學科研究,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0.
11. 陳荷清, 孫世雄, 人類對時間和空間本質的探討, 河南人民出版社, 1986.
12. 趙載光, 中國古代自然哲學與科學思想, 湖南人民出版社, 1999.
13. 李烈炎, 時空學說史, 湖北人民出版社, 1987.
14. 丁彰炫, 仲景『傷寒論』의 六經 實質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4.
15. 丁彰炫, 『黃帝內經』 中の 時空模型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5권 1호, 2002.